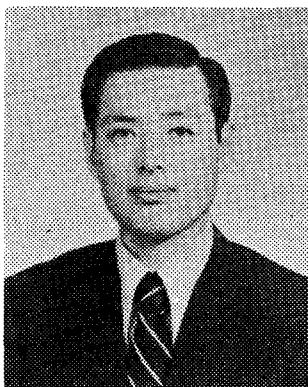


전국 하천살리기 운동을 생각한다



최신철
환경청 공보담당관
본보 편집위원

江과 人間

강은 인간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강이나 하천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문명의 발생지이며 생활터전이었다. 고대 나일강이나 갠지스강이 그러하였고, 중국의 황하강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강이나 낙동강, 금강, 유역에서 선사시대부터의 각종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그 예이다.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천한 오늘날에도 강은 인간의 삶의 원천이었다. 정신면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안식처요, 예술과 문화의 모태이며, 물질면에서는 이러한 강은 인간이 살아가는 각종 식량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1969년 건설부에서 발행된 전국 하천 총람에 의하면, 전국하천의 총 연장이 98,858 km이다. 이러한 강이나 하천은 우리민족의 젖줄이며 생명수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물질문명의 무분별한 행위에 의하여 강은 그 본래의 자태와 자연의 아름다운 숨소리를 잃고 오염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은 각종 농업용수로, 식수로 이용되거나 우리의 건강 또한 어찌 되겠는가.

모리오까 江邊의 상념

4년전 가을 어느날, 일본북부지방 모리오까라는 도시로 여행한 적이 있었다. 모리오까는 센다이(仙台)에서 북해도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써 북으로는 만년설이 있는 거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 쌓였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시냇물을 이루고 그 시냇물은 이곳 저곳의 지류가 합류되어 강으로 변해 아름답고 수려한 모리오까 시내의 도심을 굽이치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옆 독길에는 푸른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튼튼 비슷한 이름모를 꽃들이 군데군데 피어 있

“
 흐르는 강물이 바위에
 부딪칠때 마다 하얀 물거품 이루는
 그 물결을 거슬러 가면 낚시대 드리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

어 젊은 남녀들이 강변을 거닐면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지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강둑에 우두커니 앉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강변의 풍경에 도취되었다.

하얀 종이를 강물에 담그면 금방이라도 초록색으로 변해 버릴 것 같은 푸른물결, 이곳 저곳의 풀밭에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거니는 젊은 아낙네들. 흐르는 강물이 바위에 부딪칠때 마다 하얀 물거품 이루는 그 물결을 거슬러 가면서 낚시대를 드리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서울의 중랑천변과 청계천, 그리고 안양천을 생각해 보았다. 시커먼 하수물, 코를 찌르는 악취, 그리고 강변의 독길등... 문득, “나는 바다보다 강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기슭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빈슨이 그의 작품 “로만바드로우”에서 이야기 한 것이 연상된다. 수십만이 사는 모리오까시. 그 도시의 한복판을 흘러내리면서도 푸른물결을 이루는 모리오까 강을 보면서 서울의 중랑천과 안양천변을 비교하니 왜그런지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청계천의, 황수

이처럼 남의나라 도시로 관통하는 강을 보고 우리의 하천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그옛날의 청계천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서 태어나 사는 토박이나 또는 오랫동안 서울서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듯이, 50년대초만 하여도 성북동의 개천이나 청계천에는 시냇물이 유난히 맑았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였으며, 아이들은 물고기도 잡았다. 그리고 6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뚝섬이나 한강, 강나

루에는 수영과 보트놀이를 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아름답던 청계천이나 안양천은 1천만 주민이 쏟아내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찌들다 못해 빈사상태에 빠졌다.

그때 청량리나 왕십리 밖에 사는 농부들은 새벽녘이면 시내로 몰려들어 도심의 분노를 서로 사느라고 집집마다 대문 두드리며, 뽕박질을 하던 그 시절은 수질오염이나 정화조 청소라는 단어는 거론조차 없었다.

1천만이 사는 서울, 푸르고 맑다는 청계천에 정월 보름이면 사람들이 다리를 밟았으며, 사시사철 여인들이 빨래를 했던 그 전설같은 이야기가 재연될 수는 없을까.

내고장 河川을 살리는 것은 나를 위한일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맑은강을 되살려 보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전국의 하천수는 3,924개소. 이러한 하천에 하루 1만 2천톤의 폐하수가 흘러 들어간다. 그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공장이나 산업장의 폐수다.

또한 도시의 하천에 못지 않게 농어촌의 하천도 매우 오염되어 가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 농약, 분뇨, 쓰레기, 공장폐수 등이 그 주범이다.

공장이나 산업장의 폐하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공단폐수 종말처리장과 같은 공공투자 시설로써 오염을 저감시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가계에서 배출되는 70%에 달하는 생활하수에 대하여는 국민모두의 노력과 참여가 없이는 힘들다.

“

도시하천 못지않게 농어촌의 하천도
매우 오염되어 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농약등이 그 주범이다

”

만약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이라는 깊은 인식을 생활속에 정착시킨다면 70%의 생활하수는 현저히 저감될 것이며 그다지 큰 재정투자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기업이나 국민이나 주부나 학생이나 어느계층 할 것 없이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및 협조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보전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시골의 냇가에서 발가벗고 뛰놀며, 물장구치던 모습은 서울의 청계천에서 빨래하던 모습이 사라지듯이 어느새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릴지 모른다.

눈으로 볼때, 하찮게 보이는 오염된 강물은결

과적으로 모든 주민의 식수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건강과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에 위해를 줄것이다.

전국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 마을 하천살리기 운동”은 곧 “내 자손과 내 농산물 살리는 운동”이 아닌가. 이러한 시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다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젖줄, 민족의 젖줄인 우리의 강, 우리의 하천을 살림으로써 우리모두가 건강해 질것이며 자손만대 번창을 누릴것이 아니겠는가. *

시민신고센터 운영

○ 신고사항

- 하천에 오물을 버릴 때
- 하천에 쓰레기, 기름 등이 흘러가고 있을 때
- 기타 하천오염 및 시설물을 훼손할 때

○ 신고처

- 서울시청 환경과 731-6406~8
- 서울시청 치수과 362-3817, 362-3819
- 한강관리사업본부 796-2236~8
- 구청환경과

종 로 733-2191 마 포 322-4377
중 구 269-6954 강 서 602-7440
용 산 714-7629 구 로 856-3052

성 동 444-3645 영등포 670-3370
동대문 95-6735 동 작 814-2945
성 북 94-5856 관 악 877-2869
도 봉 903-2166 강 남 545-9171
은 평 388-5859 강 동 477-5142
서대문 324-8053

- 한강관리사업소 관리초소

망 원 지구 333-4125
여 의 도 지구 783-7716
이 촌 지구 796-2236
반 포 지구 591-5943
잠 실 지구 417-1348
광 나 루 지구 485-3091
잠 원 지구 534-3263

서 울 특 별 시